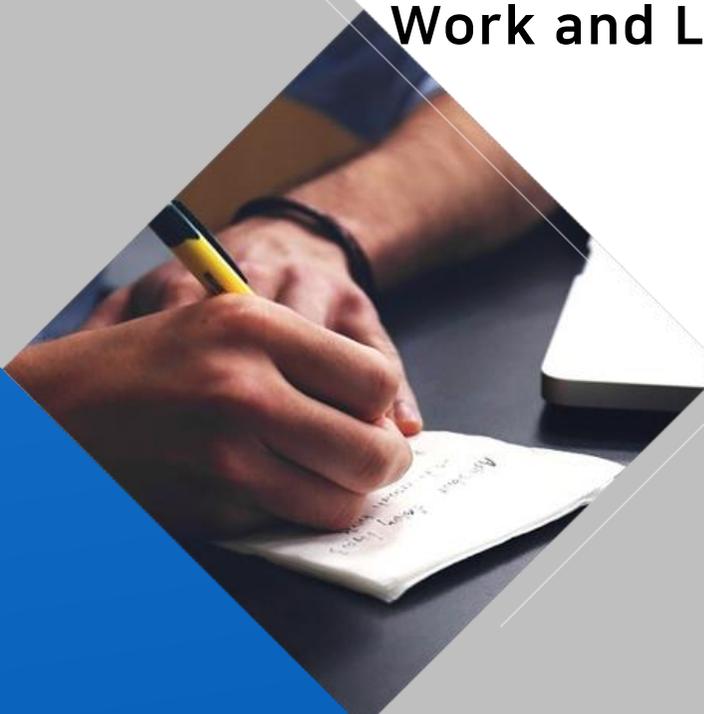


# 현대적 장인의 일과 배움, 그리고 장인성(匠人性)

Work and Learning of Contemporary Masters,  
and their Mastery



Nov. 11. 2021.

장원섭 WonsupChang  
(연세대학교 Yonsei Univ.)

# 행복을 잃은 한국 직장인 Unhappy Korean workers

## 글로벌 직장인 행복지수 Global Workforce Happiness Inde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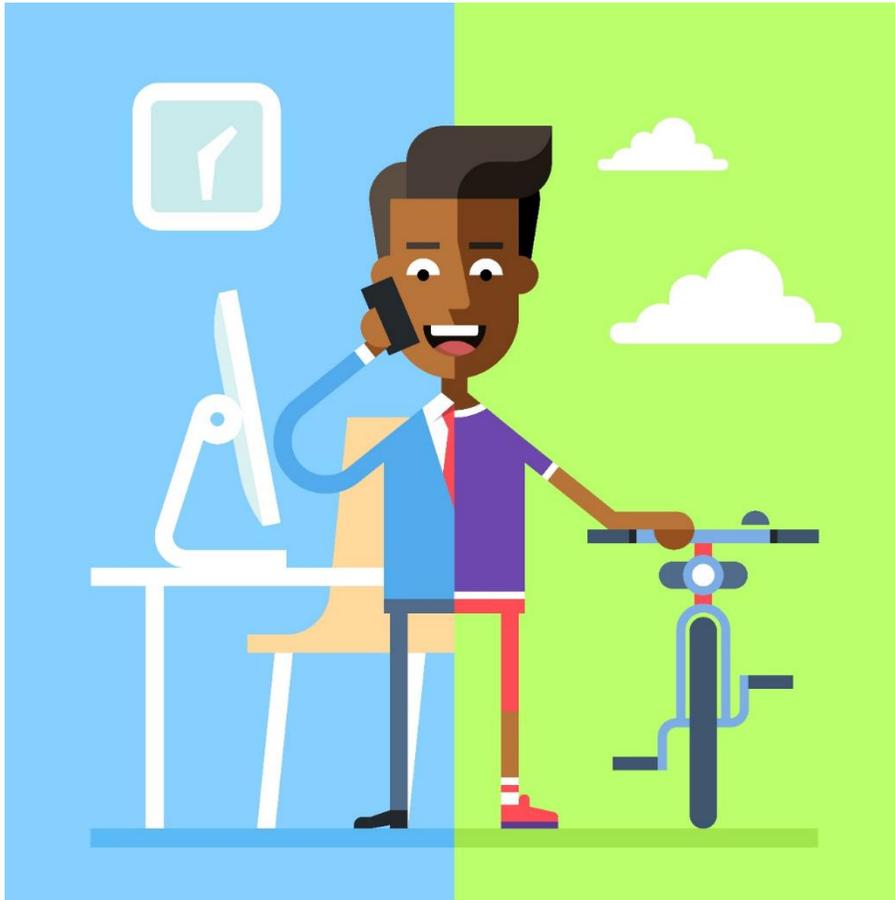
어느 나라 직장인이 가장 행복하게 일하는가? Which country has the most satisfied workers?

1	덴마크		9	헝가리		36	미국	
2	노르웨이		10	체코		⋮		
3	코스타리카		11	독일		47	일본	
4	스웨덴		16	프랑스		48	홍콩	
5	오스트리아		⋮			49	<b>한국</b> South Korea	
6	네덜란드		23	캐나다		50	케냐	
7	핀란드		27	중국		55	인도	
8	벨기에		32	영국		57	가나	

\* 출처: 중앙일보(2016. 12. 3) “나는 그저 돈 버는 기계”...한국 직장인 행복지수 최하위권 <http://naver.me/5vdX4DZu>

\* 자료: 글로벌 리서치 기업 유니버섬(Universum) 직장인의 행복지수  **universum** GLOBAL WORKFORCE HAPPINESS INDEX  
Which country has the most satisfied workers?

# 워라밸 WLB VS. 카페라떼 모형 Caffe Latte Model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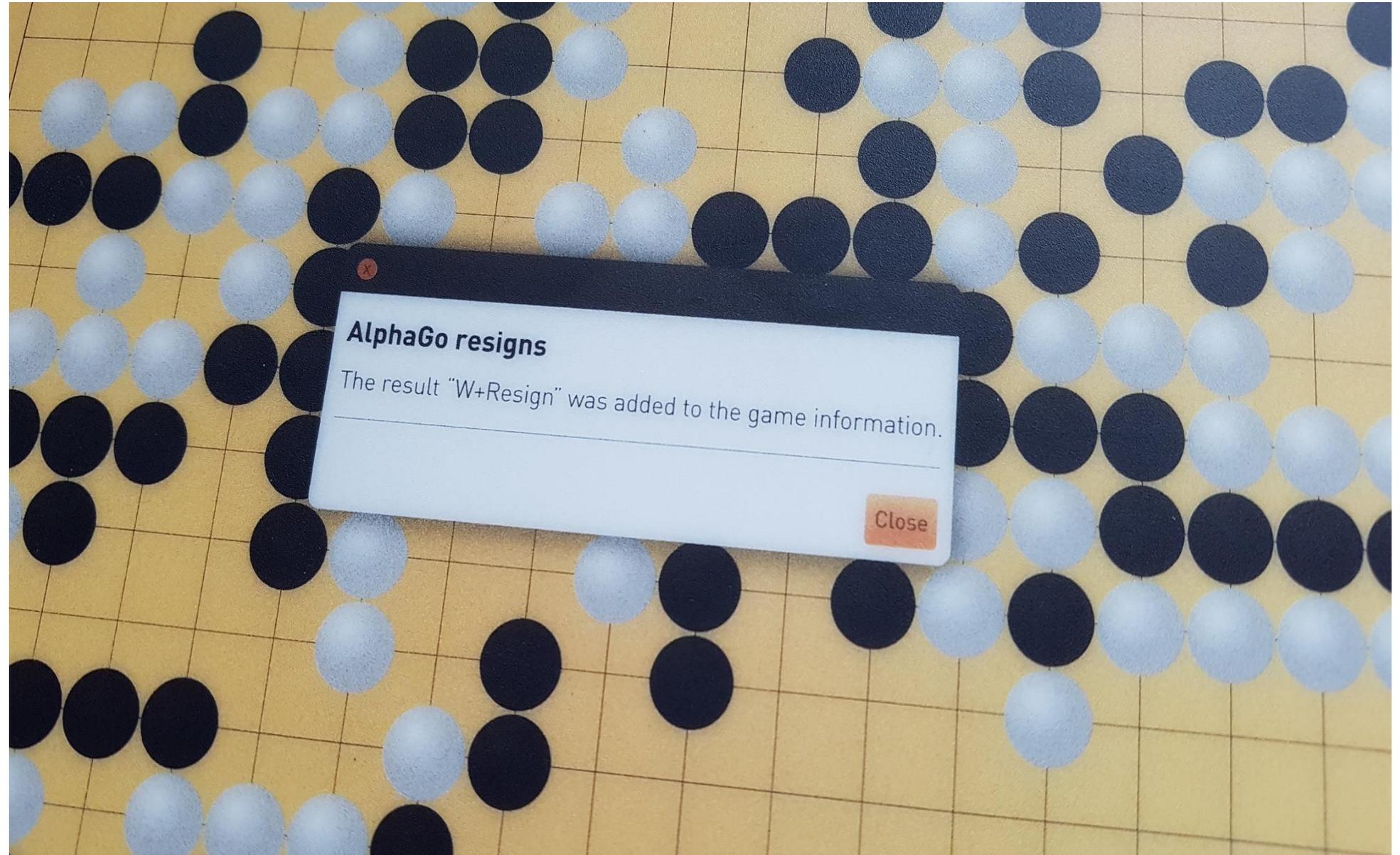
**Work-Life Balance**



**Caffe Latte Model**

\* 출처: 장원섭 (2018). 다시, 장인이다. 영인미디어.

\* 출처: Beck, U. (1999).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. 생각의 나무.



## AlphaGo resigns

The result "W+Resign" was added to the game information.

Close

# “노동하는 동물 Animal Laborans” vs. “제작하는 인간 Homo Faber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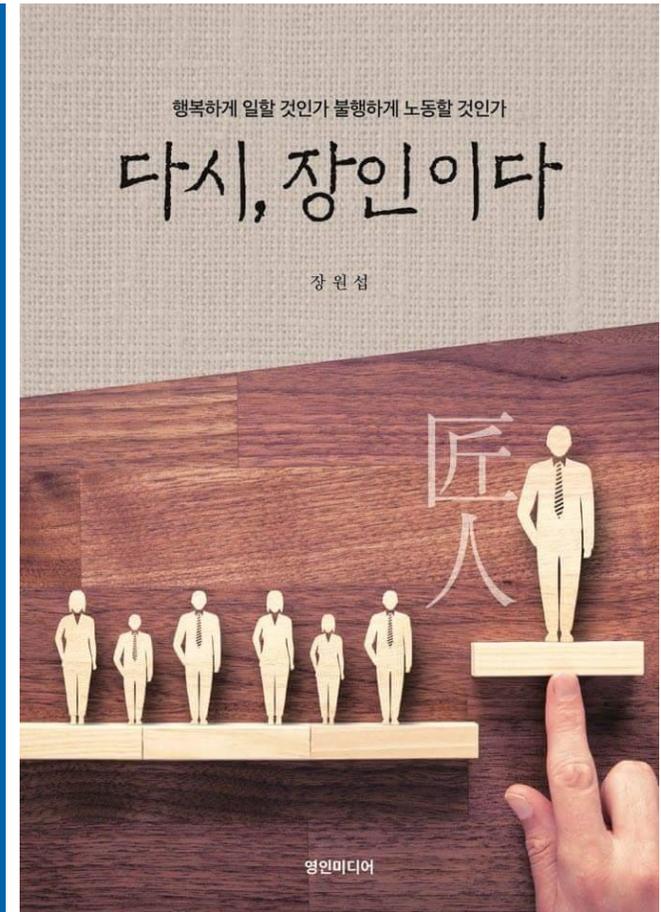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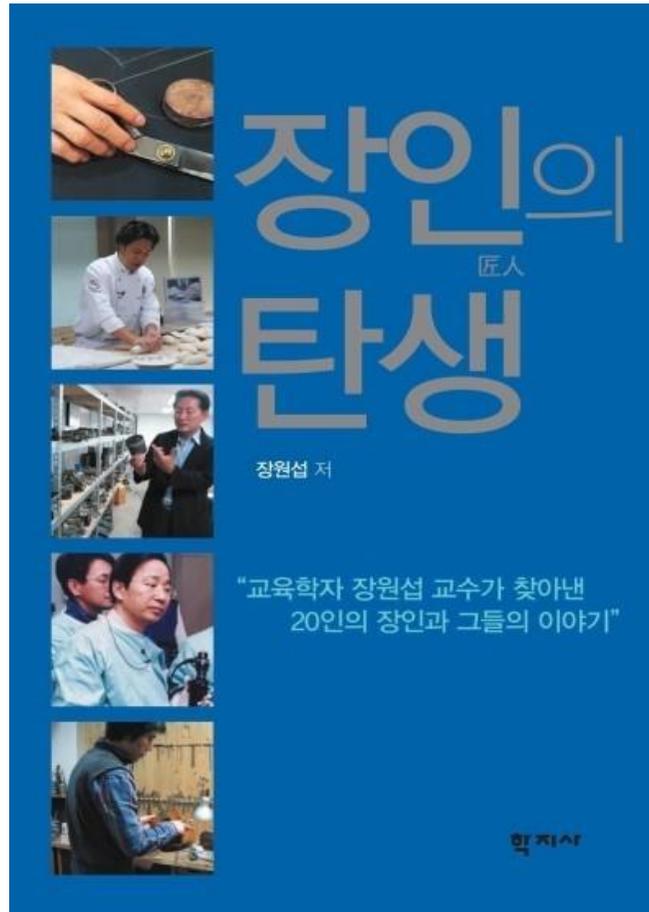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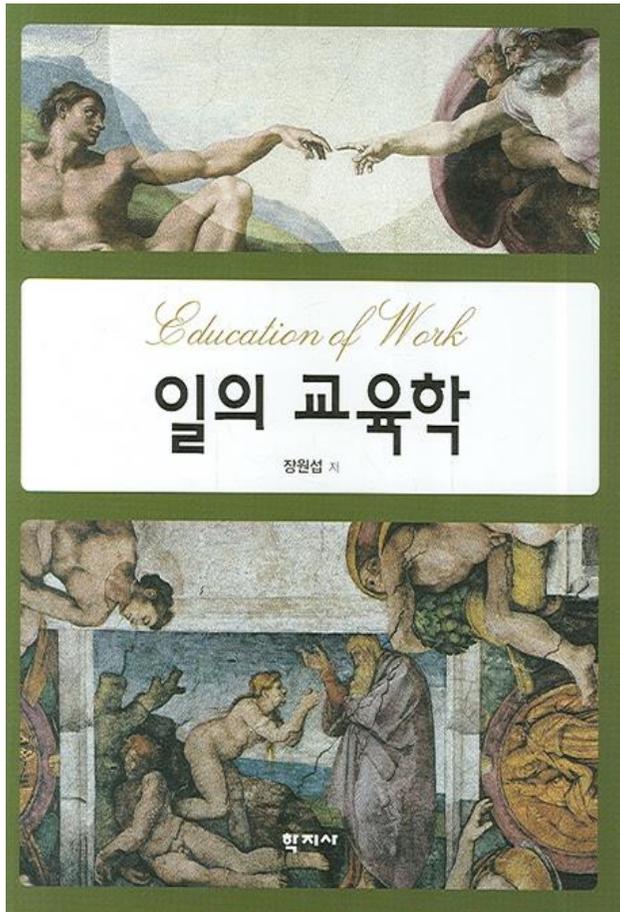
*“If this is empty, this doesn't matter.”*

\* 출처: 장원섭 (2018). 다시, 장인이다. 영인미디어.

\* 출처: Sennett, R. (2009). 장인. 21세기북스.

# 현대적 장인으로부터 배우는 일과 배움의 본질적 가치 회복

Meaningful Work and Learning of Contemporary Masters



# 장인의 재개념화: 일하는 사람의 전범(典範)

Master as an Ideal Role Model for Working Life

- 01 전통수공업 장인 Traditional craftsperson
- 02 대한민국 명장 Meister technician
- 03 전문직 장인 Professional worker
- 04 IT 장인 IT & SW worker
- 05 문화예술 장인 Artis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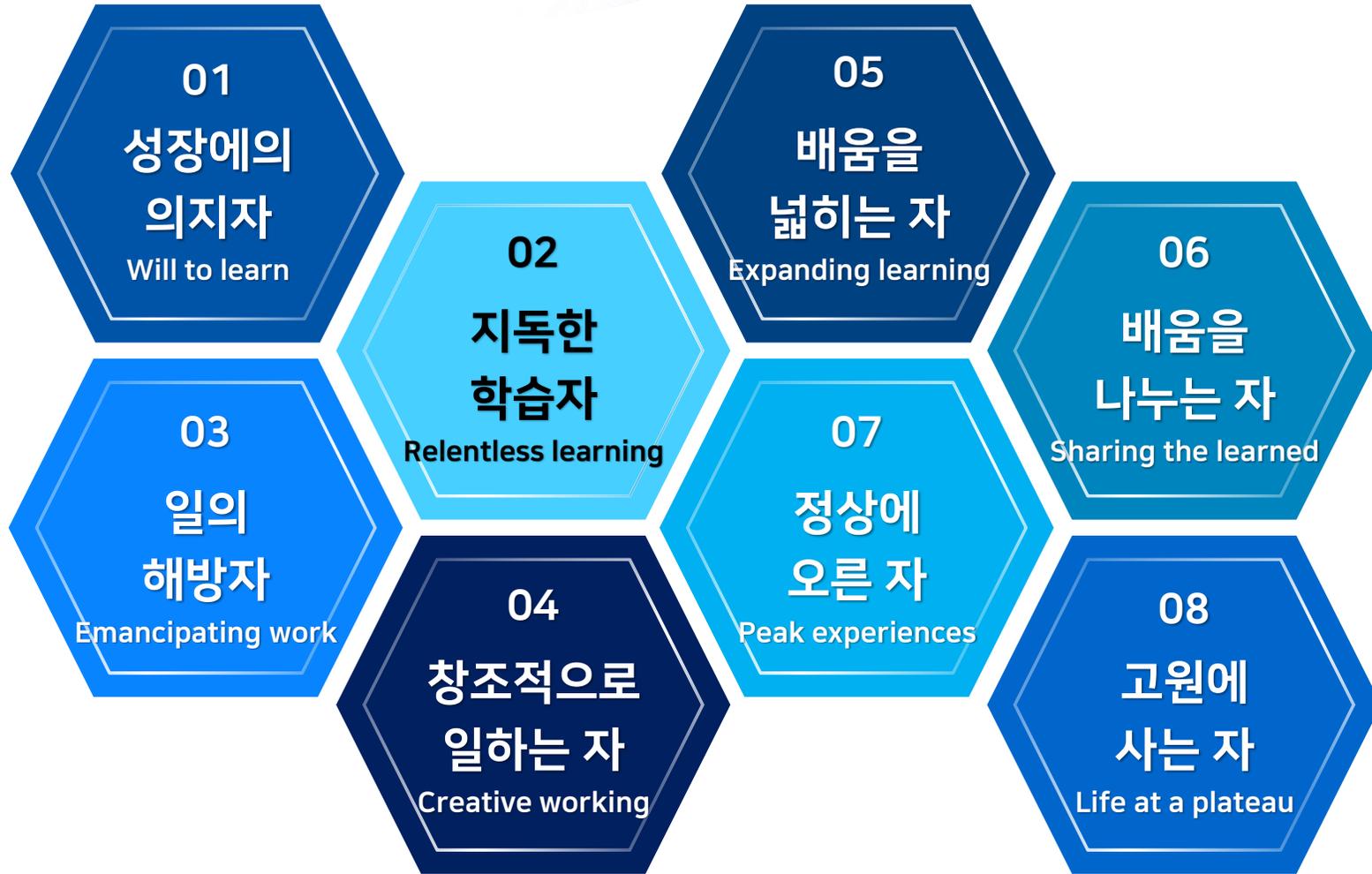
장인은 장인성(匠人性)을 가진 자다.

Masterity was found from all masters.

그렇다면, 장인성은 무엇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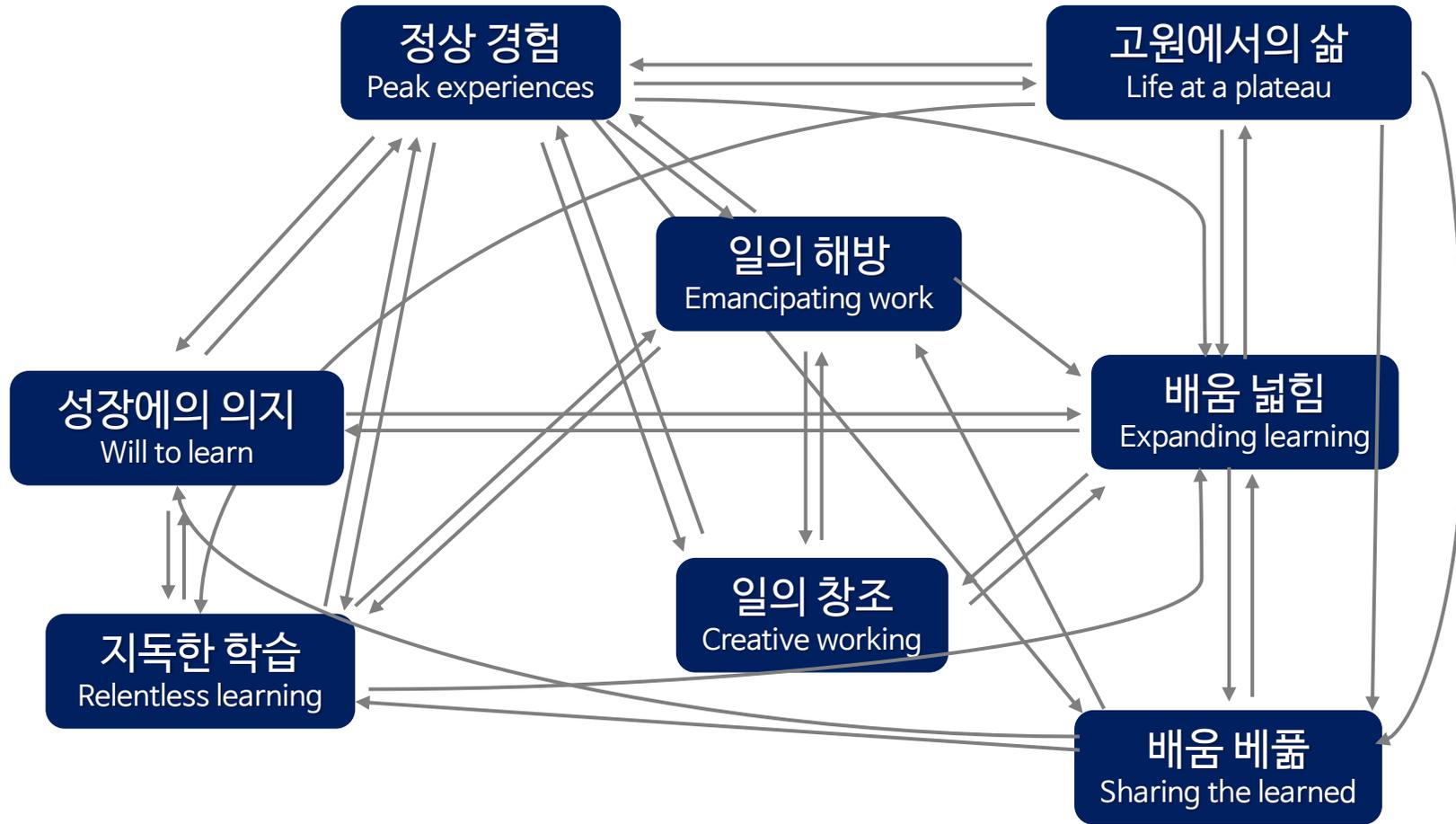
Then, what is the masterity?

# 장인성의 여덟 가지 요소 Eight elements of mastery



\* 출처: 장원섭 (2015). 장인의 탄생. 학지사.

# 장인 성장의 긍정적 순환 모형 Cyclic model of mastery development



\* 출처: 장원섭 (2015). 장인의 탄생. 학지사.

\* 출처: Chang & Koo (2017). Developing 'mastery': the 'habitus' of lifelong learning. *APER* 18(2).

# 메타역량으로서 장인성 Maturity as a meta-competence in the age of AI

01

인간이 **기계를 활용할** 뿐이다.  
Machines don't change human nature.

02

**일에 대한 자세**가 문제다.  
It is the way we work with them that should remain the worry.

03

일의 개념과 **일하는 방식**이 변하고 있다.  
The way we work is changing.

04

**일에 대한 문해력**과 **메타역량**이 필요하다.  
Work literacy and meta-competence are needed.

# ‘오래된 미래: 장인으로부터 배우다’

*‘Ancient Futures: Lessons from Masters’*

수 싸움만 할 것인가,

아니면, 진심을 담을 것인가?

Developing **masterity** through meaningful work and learning